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17.(수) 12:00
(지면) 2025. 6. 18.(목) 조간

인도-우즈베키스탄과 정부혁신, 재난안전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한-인도 정부혁신 협력 MOU 체결 논의, 재난복원인프라연합 가입 추진
- 한-우즈베키스탄 공공행정협력포럼 개최,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개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17일(수)부터 6월 24일(수)까지 인도(뉴델리)와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을 방문한다.

이번 윤호중 장관의 인도 방문은 지난 4월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특히 한-인도 간 정부혁신·재난안전·지역균형발전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공공행정 분야와 협력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해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총리, 상원의장을 비롯해 디지털기술부, 비상사태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인도 방문: 한-인도 정부혁신 협력 강화, 재난복원인프라연합 가입 추진

먼저, 윤 장관은 인도를 방문해 지텐드라 싱(Jitendra Singh) 인사·공공민원·연금부 국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는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공공행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하고, 양국 간의 정책 교류 협력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어, 라지브 란잔 싱(Rajiv Ranjan Singh) 농촌자치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를 살펴보고,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발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역 주도 성장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아미트 프로티(Amit Prothi) 재난복원인프라연합(CDRI, Coalition for Disaster Resilient Infrastructure) 사무총장을 만나 재난복원인프라연합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국제 재난 복원 협력체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재난복원인프라연합은 지난 2019년 인도 정부 주도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재난 복원과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53개국과 세계은행, 유럽연합(EU) 등 1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게 평가하며 가입을 타진했다.

또한, 윤 장관은 오므 비를라(Om Birla) 하원의장, 파루쇼탐 루팔라(Pars hottom Rupala) 인도-한국 의회친선그룹 리더와도 잇달아 면담을 갖고 양국 정부와 의회 간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인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도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윤 장관은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양국 간 우호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간디 추모 공원을 방문해 헌화한다. 이를 통해 평화와 포용의 가치를 되새기고, 다양성 존중과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또한, 인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 간담회를 열어 한-인도 관계 발전에 가고 역할을 해온 동포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 우즈베키스탄 방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협력 기반 강화, 디지털 정부와 재난안전 협력 확대

윤 장관은 이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압둘라 아리포프(Abdulla Aripov) 총리와 탄질라 나르바예바(Tanzila Narbayeva) 상원의장을 예방하여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셰르조드 셰르마토프(Sherzod Shermatov) 디지털기술부 장관과 면담하고,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I) 정책과 ‘AI 민주정부’ 구현 사례를 소개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아지즈벡 이크라모프(Azizbek Ikromov) 비상사태부 장관을 면담해 양국이 재난관리 분야 정책 및 기술 공동연구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체결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도 소개한다.

>> 공공행정 협력포럼 개최, 한-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개소

한편, 윤 장관은 과거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데이터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공무원 역량 강화라는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공유한다.

또한, 「한-우즈베키스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개소식에 참석하여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그동안 양국이 이룬 디지털정부 협력 성과를 되짚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개소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구축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문으로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에 정부 혁신, 디지털정부, 재난안전관리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공행정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양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조형선 (044-205-1841)
		담당자	서기관	이원영 (044-205-1842)
	기획조정실 행정한류담당관	책임자	과장(직무대리)	이영조 (044-205-1827)
		담당자	사무관	최민영 (044-205-1832)

